

교의

안타레스 본부, 오하이오주 지부, 2월 13일, 오전 8:00(동부표준시)

넓은 회의실 한쪽 벽이 큰 화면으로 채워져 있다. 화면에는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슷하게 생긴 방이 비춰지고 있어, 커다란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탁자 끝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주름진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15분간 부서장들과 시사 관련 대화를 나눈 후에야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끝으로 클리블랜드의 오하이오주 지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부터 중서부 지역에서 우리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기 시작했지요. 더는 시간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롤랜드 지부장에게 발언권을 넘깁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고맙습니다. 델라웨어 국장님.” 올리비아 롤랜드가 환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녀는 수사팀의 직속상관이다. “어제 저녁, 이곳 경찰서에 젊은 여성이 사망했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인 존 스미티는 돈뷰가 602 주소지에 있는 집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봤고 이후 911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경찰서의 우리 동료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목격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보존했고 감식팀이 새벽부터 작업 중입니다. 초동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주소지에서 몇 년 전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재로 부부가 사망하고 딸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한동안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갑자기 모두 잠잠해져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안타레스에 사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 살인 사건이 그 화재 및 실종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사흘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준비

시간 마커를 9:00 AM으로 옮깁니다.
권한 토큰(★) 3개를 토큰 풀에 추가합니다.

▶ 사건 목표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밝혀냅니다. 범행 동기를 알아냅니다.

▶ 시간 제한

수사팀은 3일 내에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한도

이 사건의 스트레스 한도는 3입니다.

▶ 추가 실마리

- ▶ 존 스미티 취조 - #601 - 현장업무
- ▶ 범죠헌장 조사 - #602 - 현장업무
- ▶ 살인 사건 피해자 검시 보고서 - #603 - 법원
- ▶ 범죠헌장 감식 보고서 - #604 - 실험실

추가 실마리